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정성제약종합공장과 중앙양묘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정성제약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여러차례 다녀가신 공장의 자랑찬 행로를 보여주는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정성제약종합공장모형사관앞에 이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2011년 2월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공장을 찾으시였던 날을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정성제약종합공장은 적들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과 혹심한 자연재해로 하여 온 나라가 허리띠를 졸라매야만 했던 고난의 행군시기 위대한 장군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보살피심속에서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치료예방사업에 필요한 여러가지 약품들을 연구개발하고 생산하는 현대적인 제약생산기지로 일떠섰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해까지 령도의 자욱을 짝으신 정성제약종합공장은 군인들과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남기신 우리 장군님의 애국유산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세기와 세대를 이어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치신 장군님의 헌신과 고고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최첨단제약공업의 토대를 그쁘히 갖추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우리 식의 효능높은 약품들을 더 많이 연구개발하고 생산하여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가깝게 함으로써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에서 만든 여러가지 약품들을 보신 다음 의약품검정소, 수액공장 등을 돌아보시면서 생산 및 경영활동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에서 효능높은 약들과 간편하면서도 쓰기에 편리한 여러가지 휴대용의약품들을 만들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의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고 제약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정성제약종합공장이 맡고있는 임무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이 사회주의제도가 좋다는 것을 말이나 글로써가 아니라 사회주의보건의도와 같은 사회적혜택속에서 실지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장에서는 여러가지 약품들을 대량적으로 생산하여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보내주며 의약품들의 효능을 더욱 높이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해열제, 진통제, 항생제를 비롯한 상비약들은 물론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건강관리에 요구되는 약품들을 연구개발생산하기 위한 사업도 차고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생성, 문화성, 실용성을 보장할수 있게 약품포장을 손색없이 하며 사용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할수 있도록 약품사용설명서도 잘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제약공업의 발전은 과학기술에 의하여 담보되는것만큼 공장에서는 과학기술력

량, 특히 두뇌진을 튼튼히 꾸리는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의약품생산을 정상화하자면 원료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우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자신께서 모두 풀어주시겠다는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정성제약종합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조선로동당의 의도에 맞게 맡겨진 책임과 본분을 다해감으로써 사회주의보건의도의 우월성과 위력을 최대한 발양시켜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중앙양묘장을 현지지도하시시고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는데서 나서는 강력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중앙양묘장주내에 새로 모신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보신 다음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면서 장군님을 모시고 이곳에 오시였던 2011년 10월의 그날을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중앙양묘장은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과 세심한 보살피심속에서 일떠섰다고 하시면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이곳을 찾으시여 중앙양묘장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니 푸른 숲 설레일 조국의 매일을 보는 것만 같다고 그리고도 기뻐하시던 장군님의 영상이 안겨온다고, 우리 장군님은 조국산천을 자신의 살점처럼 아끼고 사랑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라고 뜨겁게 되뇌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현지지

도의 길에서 벌거벗은 산들을 보신것을 너무도 안타까와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이 떠오른다고, 장군님의 걱정을 덜어드리지 못한 아픔이 가슴을 허빈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한성로 특 나라의 산림조성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중앙양묘장과 같은 현대적인 나무모생산기지를 유산으로 남겨놓으심으로써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닦아놓으시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중앙양묘장과 해당 부문의 일군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결음의 양보도 없이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여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묘목은 실, 묘목포전, 나무모영양단지과 부직포, 해가림발생산기지를 돌아보시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국도환경보호성과 중앙양묘장의 일군들, 종업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아글다글 노력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중앙양묘장을 돌아보신 후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는데서 나서는 강력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벌거벗은 산림을 그대로 두고 이제 더는 물러설 길이 없다고 하시면서 전후복구건설시기 온 나라가 떨쳐나 재더미를 털고 일

떠서것처럼 산림복구를 자연과의 전쟁으로 간주하고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어 산림복구전투를 벌리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산림복구전투에서 성과를 거두자면 나무심기를 대대적으로 할뿐만아니라 산림보호이자 토지보호, 생태환경보호, 경제보호사업이라는 관점밑에 숲을 보호하고 감독통제하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산림조성사업은 장기성을 띠는 사업인것 만큼 오늘을 위한 오늘이 아니라 메일을 위한 오늘을 살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을 심장깊이 새기고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밀고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전사회적으로 사회주의애국력, 모범산림군청호쟁취운동과 같은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앞에 나선 숭고한 의무이고 조국의 미래, 백년대계, 만년대계를 위한 최대의 애국사업인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은 전군총적운동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으로써 조국산천을 푸르게 하자고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전체 군대와 인민들이 열렬한 조국애를 지니고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섬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업무를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이며 내 나라, 내 조국을 사회주의강대국으로, 인민의 락원으로 더욱 아름답게 꾸려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기자

조국소식

제15차 전국교육부 프로그램전시회 진행

제15차 전국교육부 프로그램전시회가 10일부터 14일까지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되였다. 전시회에는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김형직사범대학, 평양건축종합대학, 평양제1중학교, 청진제1중학교를 비롯하여 400여개 단위의 교원, 연구사, 학생들이 내놓은 1700여건의 프로그램이 출품되였다.

그 가운데는 교육지원 및 학습프로그램, 모의실험실습프로그램, 원격교육지원체계, 시험 및 실력평가체계 등 교육의 정보화실현

에 이바지할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들어있다. 전시회에서는 조선로동당의 교육중시사상을 받들고 지난 기간 각급 교육기관

들의 프로그램개발, 리용과 업무정보화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을 소개하고 교환하였다.

본기자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의 현대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들어있다. 전시회에서는 조선로동당의 교육중시사상을 받들고 지난 기간 각급 교육기관들의 프로그램개발, 리용과 업무정보화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을 소개하고 교환하였다.

본기자

지금 북남간에 모처럼 마련되였던 대화의 분위기가 남조선당국의 무분별한 동족대결책동에 의해 파산의 위기에 직면하였다.

남조선당국은 지난 10월 북남당국자들의 인연만남이후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역행하여 서해연접수역에서 공화국의 함선에 총포탄을 쏘아댔으며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정상적인 순찰근무를 수행하던 군인들을 향해 총탄을 탄사하는 도발행위들을 일으켰다.

그리고 어중이떠중이 인간쓰레기들을 내몰아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헐뜯고 사회주의제도를 비방증상하는 반공화국도발전전베라들을 마구 뿌려대고 하였다.

공화국은 대화를 방해하는 남조선당국의 이러한 책동에 응당한 경중을 울리었으며 대결책동이 지속되는 한

북남대화나 관계개선이 있을수 없다는것을 엄숙히 천명해나섰다.

남조선 각계에서도 인간쓰레기들의 베라살포망동이 북남관계에 미칠 파괴적효과를 우려하면서 당국이 나서서 베라살포를 막아나설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표현의 자유》니, 베라살포를 막을 《법적근거가 없다.》이니 하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아 못해 베라살포를 중단하라는 공화국의 요구를 《부당한 전제조건》이라고 헐뜯고 집권자까지 나서서 인간쓰레기들의 베라살포를 막을수 없다고 공언해나서는 데까지 이르렀다.

또한 남조선당국이 인간추

물들에게 돈까지 대주며 그들을 반공화국베라살포에 부추기고있으며 남조선군부는 베라 살포되는 지역의 전투부대와 비행단들까지 전투비상에 돌입시켜 인간쓰레기들의 베라살포망동을 군사적으로 뒤받침해주고 있다.

남조선당국의 이러한 비호, 두둔, 조작책동에 힘을 얻은 인간쓰레기들은 지난 7일에도 밤중에 도적교양이처럼 경기도 파주에서 수십만장의 베라를 북을 향해 또 다시 살포하는 망동짓을 벌려놓았다.

남조선당국이 《민간단체의 자률적행동》이니 뭐니 하고 아무리 궁색스러운 변명을 늘어놓아도 인간쓰레기

들의 이번 망동은 명백히 공화국에 대한 남조선당국의 도발로서 용납할수 없는 행위이다.

인간쓰레기들이 기를 쓰고 벌리는 베라살포망동이 북남관계에 미치는 해독적효과는 이미 잘 알려졌다.

지난 시기에도 가득이나 침

이루어질수 없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남조선당국이 황당한 구실을 내대면서 인간쓰레기들의 베라살포행위를 계속 부추겨대는것은 그들이 떠드는 《대화》라령이 한갓 기만이고 머리속에는 온통 동족살포의 검은 기도밖에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본기자 최명제

《대화》라령은 기만

남조선당국은 모처럼 마련된 대화의 분위기를 깨버리고 북남관계를 더욱 파국으로 몰아간 범죄적책임에서 결코 벗어날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저들의 베라살포조장행위가 계속되는 한 언제 가도 북남대화가 이루어질수 없다는것과 대결이 지속되는 한 선입자들의 비참한 운명에서 벗어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알아두는것이 좋을것이다.

본기자 최명제

대결흥심을 만천하에 드러낸 북침전쟁연습 책동

추악한 대결정체

지난 10일부터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는 공화국을 겨냥한 대규모의 《2014 호국》북침전쟁연습이 벌어져 조선반도의 정세가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있다. 《년례적인 훈련》이라는 미명하에 21일까지 벌어지는 이번 《호국》훈련에는 지난 시기의 4배이상에 달하는 33만여명의 남조선군병력과 기동장비 2만 3 000여대, 60여척의 함정, 각종 비행기들이 동원되어 《전방군단 작전계획시행훈련》, 《서북도서방어훈련》, 《해상, 해안침투훈련》, 《합동상륙훈련》 등이 실전의 분위기가속에서 벌어지며 미군과의 합동훈련도 여러차례 진행되게 된다고 한다.

남조선군부호전선광들은 이번 훈련이 《북의 도발에 대비한 최고의 군사대비태세 확립》에 목적을 두었다고 내놓고 떠들면서 공군비행단들의 대규모전투태세훈련과 육군 2군단을 비롯한 전투병력들의 실전을 가상한 야외기동공격훈련을 벌이고 있으며 서해열점지역에서는 서북도서방위 사령부관하의

육, 해, 공군병력과 증원부대병력을 총동원하여 상륙작전훈련 등을 미친듯이 강행하고있다.

남조선군부호전선광들 스스로가 《2개 군단급부대가 기동훈련을 했던 레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모든 군단급부대가 참가한다.》고 하면서 올해 《호국》훈련은 역대 최대규모로서 공화국을 겨냥한것임을 꺼리낌없이 내뽐고있는 판이다.

북과 남사이에 대화와 평화화를 바라는 겨레의 지향과 내외여론에 역행하여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는 《호국》북침전쟁연습은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외교규범을 벗어난 불합리한 대결정체》이요 위요 하며 서생색을 피우던 남조선당국의 본심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것을 만천하에 그대로 보여주었다.

남조선당국이 추악한 인간 쓰레기들의 반공화국베라살포망우를 극구 비호조장하여 북남사이에 총격전이 오가고

모처럼 마련되어가던 대화의 분위기를 파국으로 몰아갔것이 바로 었고제일이다.

그런데 오늘은 또다시 레전에 없는 대규모의 병력을 동원하여 공화국을 반대하는 무모한 군사적대결발동에 매달리고있다.

반공화국베라살포행위를 전면금지할때 대한 북의 정당한 요구에는 《표현의 자유》요, 《법적명분》이요 위요 하며 아니보살하더니 이번 대규모의 북침전쟁연습에는 그 누구의 《국지도 배반》이니, 《전면전상황에 대한 대응》이니 뭐니 하는 구실을 내똥고있다.

남의 집 공발에 소를 풀어 놓고도 할 소리가 있다더니 과연 기만과 권모술수에 이끌린 남조선당국만이 내놓을수 있는 적반하장적 후안무치한 꾀변이다.

한쪽으로는 《대화》를 떠들면서 다른쪽으로는 기만적인 구실을 내대며 베라살포와 같은 비방증상은 물론

동족대결수행의 돌격대로 내몰려 하고있는것이다.

남조선당국자가 밖에 나가 《대화》니, 《동북아시아평화와 협력》이니 뭐니 하는 요사스러운 소리를 늘어놓고 돌아앉아 집안에서 대규모의 북침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여놓는 광란적인 행동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장본인이 누구인가를 명백히 말해주고있다.

안팎이 다른 남조선당국의 추악한 모습은 그들이 입이 닳도록 떠드는 《신뢰》와 《평화》라령이 한갓 기만에 불과하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허위와 기만은 더이상 통할수 없다.

남조선의 호전세력들이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를 우롱하면서 외세에 편승하여 동족을 해치고 어리석기 그지없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통일》을 이루어보겠다고 북침전쟁연습에 광분할수록 그것은 그대로 제가지른 불에 제가 타죽는 비참한 꼴이 되고말것이다.

본사기자 서 희

《호국》이 아니라 매국이나

남조선군사불한당들이 레전에 없는 최대규모로 이번에는 또다시 《호국》훈련을 벌여놓았다고 한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대화》라령을 늘어놓다가 금방 돌아앉아 전쟁연습을 벌여놓으니 대결광신자의 본색은 정녕 감출수 없는법이다.

군사주권인 전시작전통제권마저 미국산정에 넘겨버린 주제에 그 무엇을 지킨다고 《호국》훈련이라 하니 가소로움을 금할수 없다.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는

동족을 해치겠다고 외세에 추종하는 전쟁연습을 벌여놓는것은 그대로 매국이고 반역이다.

우리 군인건설자들이 일터 세운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에서 좋아라 뛰놀던 어린이들의 행복넘친 얼굴이 언뜻 언뜻에 삼삼히 떠오른다. 티없이 맑은 그 눈동자들에 절대로 그들이 비끼게 할수 없다.

우리의 맘이 지킨다. 인민사랑의 대기념비적진족물들을 더러운 매국노들이 짓밟으려 한다니 총잡은 이 손

이 분노에 떨린다.

인민의 리상이 현실로 꽃피는 이런 아름다운 행복의 보금자리를 어찌 적대세력의 톱락물로 내밀길수 있겠는가.

유명만 해보라. 더는 용서치 않겠다.

남조선을 통채로 미국에 넘겨버치다 못해 우리 공화국까지도 아예보려는 어리석은 매국의 부리들을 이번에는 아예 징벌의 불기마에 처넣을것이다.

조선인민군관 서광재

침략의 불을 지른다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우리 사회제도를 압살해보겠다고 남조선호전세력들이 역대 최대규모의 《호국》훈련을 미친듯이 강행하고있다 정말 치가 떨린다.

남조선의 호전세력들이 나라를 배반하고 부도쳐자까지 쉼버린 한중도 안되는 인간 쓰레기들을 내몰아 우리의 최고존엄과 인민들이 찬양하는 사회주의제도를 약탈하게

힘트는 베라살포행위를 거리낌없이 벌리는것도 성차지 않아 이제는 내놓고 우리를 어찌보겠다고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전쟁훈련을 미친듯이 벌리고있으니 어제날의 총원병사들이었던 우리 재군인 대학생들의 가슴가슴은 지금 분노와 복수의 피로 끓어번지고있다.

해볼때면 해보자. 그렇지 않다면 기다리는 우리

들이다.

만약 남조선호전세력들이 하루까지 범부서운줄 모른다는 격으로 이 땅에서 침략의 불을 지른다면 우리 청년대학생들은 과학탐구의 펜대를 복수의 총창, 멸적의 총창으로 바꿔주고 수십년간 쌓이고쌓인 분노의 용어리를 속시원히 풀고야말겠다.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 림철수

침략전쟁연습을 확대해온 군부패당을 규탄

남조선인터넷신문 《통일뉴스》가 9일 위협천만한 북침전쟁연습인 《호국》훈련을 계단식으로 확대하며 전쟁위기를 격화시켜온 군부패당의 죄행을 폭로하는 글을 실었다.

글은 10일부터 감행되는

《호국》훈련에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부력이 동원되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1996년부터 실시되어온 이 군사연습은 초기에 합동 및 통합방위훈련위주의 작전계획시행훈련으로 진행되어왔다고 지적하였다.

2008년부터 군단급의 기동훈련과 작전계획시행훈련을 통합하고 전군급 대부대들의 기동훈련으로 확대되던 과정에 2010년에 연평도포격전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그후 훈련참가규모가 대폭 늘어났으며 올해에는 역대 최대규모로 군사연습이 벌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군사연습의 확대로 연평도포격전이 재발될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반공화국베라살포로 남부관계가 악화된 상태에 대 규모군사훈련이 진행된다고 하면서 글은 군부당이 리성적으로 행동할것을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전쟁연습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미국의 침략동맹조작책동을 반대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11일 서울의 미국대사관앞에서 182차 자주통일평화행동을 가지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호위망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침략동맹조작책동을 규탄하였다.

단체는 이번에 미국이 남조선, 미국, 일본사이 3각군사동맹구축의 돌격대장노릇을 해왔던자를 서울주재 자국대사로 임명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이것은 3각군사동맹구축을 강하게 추진하려는 속심

을 드러내보인것이라고 비난하였다.

미국이 남조선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계속 틀어쥐려고 하는것은 남조선, 일본의 미씨일방위체제를 저들의 체제에 통합시켜 새로운 군사동맹을 내오고 북에 대한 포위망을 완성하기 위한 전략적 리해관계에 따른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번 년례안보협의회에서 남조선, 미국, 일본사이 정보공유를 위한 협정을 향해각서형태로 체결하는 문제를 계속 논의하기

로 한것도 미씨일방위체제의 작전적요구를 위반침착하는 제국의 사정을 실었다.

사실은 범민당국이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에게 징역 등의 형벌을 적용하였다고 밝혔다.

법원으로서가 그것이 엄벌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유가족들에게는 그렇게 여겨지지 않을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세월》호참사의 책임은 선장과 선원들에게만 물을 일이 결코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본사기자

알려진것처럼 지금 남조선에서는 동족을 겨냥한 《2014 호국》북침전쟁연습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전방군단 작전계획시행훈련》, 《해상, 해안침투훈련》, 《합동상륙훈련》 등 간관만 보아도 공격적이고 침략적인 성격이 뚜렷한 전쟁연습수행이 그것도 역대 최대규모로 벌어지고있으니 가족이나 총명족 풀리지 않고있는 북남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보듯 뻔한 사실이다.

특히 군부우두머리들의 호전적광기는 조선반도정세를 더욱 견잡할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가고있다. 지난 12일에도 남조선군의 합참의장 최윤희는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는 특군기회화병대 도하훈련장을 돌아치며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그 누구의 《도발》에 대해, 《단호한

전쟁열에 들뜨 호전광

된 후로 더욱더 로골적으로 반공화국대결에 미쳐달취면는 군사분계선지역에 있는 남조선군소들을 찾아다니고 그 간관만 보아도 공격적이고 침략적인 성격이 뚜렷한 전쟁연습수행이 그것도 역대 최대규모로 벌어지고있으니 가족이나 총명족 풀리지 않고있는 북남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보듯 뻔한 사실이다.

특히 군부우두머리들의 호전적광기는 조선반도정세를 더욱 견잡할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가고있다. 지난 12일에도 남조선군의 합참의장 최윤희는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는 특군기회화병대 도하훈련장을 돌아치며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그 누구의 《도발》에 대해, 《단호한

응징》에 대해 요란히 떠들었다.

최윤희로 말하면 극악한 반공화국대결분자, 전쟁열에 떠들쭎드 모르는 보기도 못한 호전분자로서 지난해 10월 해군출신으로서 처음으로 합참의장자리에 올라앉은자이다. 합참의장이

진상을 끝까지 밝혀낼것을 주장

남조선신문 《한겨레》가 11일 《(세월) 호 선장만 엄벌한다고 끝까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실은 범민당국이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에게 징역 등의 형벌을 적용하였다고 밝혔다.

법원으로서가 그것이 엄벌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유가족들에게는 그렇게 여겨지지 않을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세월》호참사의 책임은 선장과 선원들에게만 물을 일이 결코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본사기자

은 바로 이런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해왔다.

북남사이 대화와 협력을 달가워하지 않고 말차레 전쟁을 즐기는 속성과 동족대결의식이 뼈속깊이 스며있기에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은 북남관계개선에 늘생 찬물만

갈수록 벗겨지는 《인권옹호자》의 허울

민주주의와 인권의 《옹호자》로 자처하는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인권 재판관》노릇을 곧잘 하고있다. 흑심한 저들의 인권상황이나 실태는 당분간 가 어둡고 그 누구의 《인권문제》가 어쩔수없고 소란을 꾸미면서.

그러면 미국이 과연 《인권옹호자》인가.

최근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는 미 정보기관이 제 2차 세계대전중 식후 랭전시대에 최소 1 000여명의 파쇼도발자들을 간첩으로 리용했다는 기밀 자료를 공개하였다.

그에 따르면 랭전위기가 잘려질때 말하던 1950년대에 나치선분자들을 미국이 자기 정보원으로 활용했는데 그중에는 유래인대량학살로 악명을 떨친 아돌프 아이히만의 최측근인 오도본 불슈빙도 포함되었었다고 한다. 불슈빙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 미군법정기관과 미중앙정보국 등에서 일하다

군사적총동을 일으켰다. 런이 군사분계선 자기측 지역에서 정상적인 순찰근무를 수행하는 북측 군인들에게 마구 총질을 해대는 엄청난 군사적도발을 감행하여 쌍방사이에 위협천만한 총격전이 벌어지게 하였다. 그때 놓고도 돌아앉아 북측에 대

발》타령이 울러나고 《그에 대처한》 전쟁연습수행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다.

최윤희와 같은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의 책동은 그대로 두어서는 군사적총동과 전쟁밖에 일어날것을 없다. 이것을 어찌 용납할수 있겠는가.

최윤희와 같은 호전광들이 미국산정을 하내비처럼 다시 총격이 가해졌는데 이것 역시 정상적인 순찰근무를 수행하고있는 북측 군인들에게 남측 호전광들이 한 것이다. 뒤이 또다시 《도

발》타령이 울러나고 《그에 대처한》 전쟁연습수행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다.

최윤희와 같은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의 책동은 그대로 두어서는 군사적총동과 전쟁밖에 일어날것을 없다. 이것을 어찌 용납할수 있겠는가.

최윤희와 같은 호전광들이 미국산정을 하내비처럼 다시 총격이 가해졌는데 이것 역시 정상적인 순찰근무를 수행하고있는 북측 군인들에게 남측 호전광들이 한 것이다. 뒤이 또다시 《도

본사기자 김련옥

세계가 에볼라바이러스 감염증 공포에 휩싸이던지 여러달이 흘렀다. 현재 에볼라 바이러스는 발병지역인 서아프리카를 벗어나 아시아와 유럽, 아메리카 등 세계 여러 지역으로 급속히 전파되고있다.

지난 4일 세계보건기구(WHO)는 현재 에볼라바이러스 감염자가 1만 3 0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5 000명에 근접했다고 발표했다. 에볼라바이러스가 이미 널리 퍼진 서아프리카의 기네와 리베리아, 시에라레온 등 3개나라는 감염

비무스감염증의 전파가 지금도 계속되고있으며 환자수는 매일과 같이 늘어나고 지적, 물질적피해와 함께 발병지역들에서 심각한 불안정이 조성되는 등 막대한 후파가 초래되고있다고 하면서 이것이 《오늘날 가장 심각한 난문제 하나》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알려진것처럼 사망률이 90%까지 이르는 에볼라바이러스 감염증은 1976년 민주공공의 에볼라강부근에서 처음으로

에 에볼라바이러스를 전파시킨 장본인은 바로 미국이라고 한 몬로비아종합대학 식물병리학자의 주장을 실은 리베리아 《데일리 옵세버》의 기사를 전하였다. 이 기사에 따르면 식물병리학자는 시에라레온에 에볼라바이러스가 전파되기 몇주일전 미국방성이 전문가들에게 자금을 대주어 에볼라바이러스를 가지고 생체실험을 진행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방성은 캐나다

에볼라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악의 제국

이미 오래전에 폭로된 사실이다.

한 미국과학자는 미국정부 기관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리베리아와 시에라레온에서 생물무기연구를 진행해왔으며 현재 미국에는 생물무기 연구용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에볼라바이러스 감염 등 예방을 취급하는 최고기관인 질병통제 및 방지센터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전 미국대통령 레根的 비서관이었던 폴은 최근의 에볼라바이러스 구린내라는 력사를 가지고있다는 기사를 발표하여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미국이라는것을 날같이 교활하고있다.

저들의 침략적인 세계지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잔인무도한 생물무기연구와 생체실험으로 죽음의 비루스까지 만들어내고 전파시켜 인류의 생존을 크게 위협하고 행성에 죽음의 공포가 떠들거 한 미국이아말로 에볼라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악의 제국이라 해야 할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치명리는 범피행위는 응당 유엔에서 범죄되어야 하며 범죄국가 미국은 국제인권포고서에 얹아야 한다.

본사기자 김웅철

반공화국 《인권》소동은 전쟁선포와 같다

제미동전국련합회 대변인이 5일 논평을 통해 미국 반공화국 《인권》소동의 본질을 까밝았다.

논평은 《북인권문제》를 들고나온 미국의 의도는 북전쟁을 합리화하기 위한것으로서 북에 대한 전쟁선포나 다름이 없다고 단죄하였다.

지금 미국은 북에서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친 민간쓰레기들의 조작된 거짓말을 바탕으로 계속 《북인권》에 대해 떠들고있다고

미국이 무인기공으로 수많은 민간인들이 죽은것은 세계인권선언 10조와 30조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된다. 미국이 20여만명의 요원들과 방대한 자금지원을 가지고 세계통신의 95%이상을 도청하고있는것 역시 국제법을 짓밟는 판국한 인권유린행위이다. 미국식 《인권》을 제대로 하여 모든것을 재면서 저들과 사상과 제도, 문화가 다르다고 하여, 일련의 나라들이 자주권을 중시하고 고유한 사회정치체제를 발전시켜나간다고 하여 《인권유린》의 감투를 씌우는것이 나 《인권옹호》의 미명하에 방대한 무력을 들이밀어 순식간에 합법적인 주권국가들을 정복해버리는것이 다 인권침해에 가장 큰 인권침해라고 해야 할것이다.

인권문제가 부각되면 바로 인권이 문제시되어야 하고 인권범죄가 재판되어야 바로 미국의 인권침해행동부터 재판에 회부되어야 한다. 인권유린왕조의 체제가 여지없이 드러난 조건에서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대해 감히 《인권》이 리얼소치럴스할 체면은 없다. 미국이 앞으로 《인권옹호자》의 행세를 한다면 그것은 인권존중을 선차적요구로 내세우는 세계인심에 대한 우롱, 참을수 없는 모독으로 될뿐이다.

김련희

미국이 무인기공으로 수많은 민간인들이 죽은것은 세계인권선언 10조와 30조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된다. 미국이 20여만명의 요원들과 방대한 자금지원을 가지고 세계통신의 95%이상을 도청하고있는것 역시 국제법을 짓밟는 판국한 인권유린행위이다. 미국식 《인권》을 제대로 하여 모든것을 재면서 저들과 사상과 제도, 문화가 다르다고 하여, 일련의 나라들이 자주권을 중시하고 고유한 사회정치체제를 발전시켜나간다고 하여 《인권유린》의 감투를 씌우는것이 나 《인권옹호》의 미명하에 방대한 무력을 들이밀어 순식간에 합법적인 주권국가들을 정복해버리는것이 다 인권침해에 가장 큰 인권침해라고 해야 할것이다.

인권문제가 부각되면 바로 인권이 문제시되어야 하고 인권범죄가 재판되어야 바로 미국의 인권침해행동부터 재판에 회부되어야 한다. 인권유린왕조의 체제가 여지없이 드러난 조건에서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대해 감히 《인권》이 리얼소치럴스할 체면은 없다. 미국이 앞으로 《인권옹호자》의 행세를 한다면 그것은 인권존중을 선차적요구로 내세우는 세계인심에 대한 우롱, 참을수 없는 모독으로 될뿐이다.

김련희

에볼라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악의 제국

로 발생하였다. 당시 아프리카의 중부와 동부지역 나라들에 퍼진 이 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최근의 에볼라바이러스 감염증은 아프리카의 중부와 동부에서가 아니라 서부에서 발생되어 세계 각지에 전파되고있다.

이에 대하여 세계의 많은 보건기관들과 연구자들이 의문을 가지고 연구를 심화시키고있다. 이런 속에 지난 4일 니까라과 산디노 민중해방전선기관지 《라보스 엘 산디노리스트》는 서아프리카의 리베리아와 시에라레온을 비롯한 서부지역

의 어느 한 제약회사에 에볼라바이러스연구비용으로 1억 4 000만US\$를 지불하였다고 폭로하였다.

이어서 학자는 시에라레온의 수도에 생물체로를 가한 장본인은 바로 미국이라고 강조하면서 《발견도상나라들은 자기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야 한다. 특히 미국이나 서양에 비해 과학과 공업이 뒤떨어진 아프리카나라들은 서방의 생물무기 시험장으로 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이미 미국의 보건 및 후생상이 시인한바와 같이 미행정부는 지난 기간 치명적인

이제 미국과학자는 미국정부 기관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리베리아와 시에라레온에서 생물무기연구를 진행해왔으며 현재 미국에는 생물무기 연구용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에볼라바이러스 감염 등 예방을 취급하는 최고기관인 질병통제 및 방지센터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전 미국대통령 레根的 비서관이었던 폴은 최근의 에볼라바이러스 구린내라는 력사를 가지고있다는 기사를 발표하여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미국이라는것을 날같이 교활하고있다.

저들의 침략적인 세계지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잔인무도한 생물무기연구와 생체실험으로 죽음의 비루스까지 만들어내고 전파시켜 인류의 생존을 크게 위협하고 행성에 죽음의 공포가 떠들거 한 미국이아말로 에볼라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악의 제국이라 해야 할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치명리는 범피행위는 응당 유엔에서 범죄되어야 하며 범죄국가 미국은 국제인권포고서에 얹아야 한다.

본사기자 김웅철

반공화국 《인권》소동은 전쟁선포와 같다

제미동전국련합회 대변인이 5일 논평을 통해 미국 반공화국 《인권》소동의 본질을 까밝았다.

논평은 《북인권문제》를 들고나온 미국의 의도는 북전쟁을 합리화하기 위한것으로서 북에 대한 전쟁선포나 다름이 없다고 단죄하였다.

지금 미국은 북에서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친 민간쓰레기들의 조작된 거짓말을 바탕으로 계속 《북인권》에 대해 떠들고있다고

미국이라는것을 날같이 교활하고있다.

저들의 침략적인 세계지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잔인무도한 생물무기연구와 생체실험으로 죽음의 비루스까지 만들어내고 전파시켜 인류의 생존을 크게 위협하고 행성에 죽음의 공포가 떠들거 한 미국이아말로 에볼라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악의 제국이라 해야 할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치명리는 범피행위는 응당 유엔에서 범죄되어야 하며 범죄국가 미국은 국제인권포고서에 얹아야 한다.

본사기자 김웅철

반공화국 《인권》소동은 전쟁선포와 같다

제미동전국련합회 대변인이 5일 논평을 통해 미국 반공화국 《인권》소동의 본질을 까밝았다.

논평은 《북인권문제》를 들고나온 미국의 의도는 북전쟁을 합리화하기 위한것으로서 북에 대한 전쟁선포나 다름이 없다고 단죄하였다.

지금 미국은 북에서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친 민간쓰레기들의 조작된 거짓말을 바탕으로 계속 《북인권》에 대해 떠들고있다고

미국이라는것을 날같이 교활하고있다.

저들의 침략적인 세계지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잔인무도한 생물무기연구와 생체실험으로 죽음의 비루스까지 만들어내고 전파시켜 인류의 생존을 크게 위협하고 행성에 죽음의 공포가 떠들거 한 미국이아말로 에볼라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악의 제국이라 해야 할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치명리는 범피행위는 응당 유엔에서 범죄되어야 하며 범죄국가 미국은 국제인권포고서에 얹아야 한다.

본사기자 김웅철

인간의 권리와 자유

먹고 입고 쓰고 살 권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의 생존을 유지함에 필요한 물건이나 일자리같은것을 가질 권리가 있다.

그중에서 먹고 입고 쓰고 살 권리는 인간의 가장 초보적인 생존권에 속한다. 인간의 이러한 권리가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고있는 사회가 다름아닌 공화국이다.

공화국의 헌법에는 국가가 공민들에게 정치적자유와 권리뿐 아니라 물질, 문화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건을 보장해준다는것이 규제되어 있다.

이것은 먹고 입고 쓰고 사는데 필요한 생존권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는것이 법적으로 담보되어있다는것을 말해준다.

공화국에서는 국가가 협동농장들에서 생산된 알곡을 인민들에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주고있다. 뿐만아니라 소금이나 간장, 된장, 기름을 비롯한 식료품들과 치약, 치약, 비누와 같은 대중소비

품의 가격을 적게 정하는 원칙에서 상품공급사업을 진행 하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해마다 도시와 농촌에 짓고있는 수많은 살림집들은 다 국가가 막대한 자금을 들여 무상으로 지어주는 집들이다. 올해 새로 일떠선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과 위성과학자거리 역시 마찬가지이다. 바로 평범한 노동자들과 사무원, 교원, 연구사, 과학자들이 돈 한푼 내지 않고 생활에 필요한 일체 가구비품들이 그쯘하게 갖추어진 살림집들에서 살고 있는것이다.

이런것으로 하여 공화국에는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도 집이 없어 길거리를 방황하는 사람도 없다.

하지만 한지백으로 잇닿아 있는 남조선사회의 현실은 어떠한가.

얼마전 남조선에서는 한 문화인이 먹을것이 없어 여러달동안 굶주리다가 끝내는

굶어죽은 사실이 알려져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대도 사회의 문명이라고 하는 지식인이 이 정도 이니 다른 사람들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남조선에는 절대빈곤층 570여만명, 아무리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 250만명 등 삶의 근바지에서 신음하는 빈곤층이 1000여만명에 달한다.

전체 주민세대의 45%에 달하는 700만세대가 자기 집이 없이 남의 집에 세방살이를 하고있으며 판자집, 비닐집, 집합, 동굴, 움막 등 집 아닌 집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이다.

가까스로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가 없어 아예 직업 구하기를 포기한 《취는 인구》, 자포자기한 《청년백수》만도 72만여명에 달한다. 오죽하면 남조선의 한 언론이 수많은 청년들이 취직을 포기하고 전자오락이나

당구 등으로 허송세월을 보내고있는 광경을 두고 《그들의 모습은 우리 사회의 뼈아픈 자화상》이라고 개탄하였는가.

이처럼 몇 안되는 극소수 특권층에게는 《천국》이지만 대다수의 근로대중에게는 《지옥》이나 다름없는것이 바로 남조선사회의 현실이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인간의 초보적권리를 보호하는것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문제이지만 이남에서는 인권이 이미 현실처럼 내버려진지 오래다.》고 하면서 《이북은 인권이 참담하게 보장된 사회》, 《이북이야말로 전민이 만복을 누리는 이상향, 인권의 대화원》이라며 부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것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에 입사하는 교육자정에 기쁨이 넘쳐난다.

나는 복녘의 유치원과 소학교, 중학교 등 교육기관들을 방문하면서 북부조국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교원들의 의식구조와 이 사회의 미래를 내다볼수 있었다.

기자는 평양시내에 있는 경상유치원과 평양제1중학교의 교육시설을 돌아보고 이와 함께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뿐아니라 원장, 교장, 부교장 등 교원들을 만나 이들의 교육현황을 알아보았다. 평양시 각 지역에는 동마다 유치원이 설립되어있었다. 우리가 찾아가던 경상유치원은 모범유치원들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있다.

이곳을 참관하여 10년제 근무하고있는 원장의 안내에 의해 시설들을 돌아보고 유치원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관찰할수 있었다. 이 유치원은 1954년 개원되어오다가 1979년에 음악적재능과 소질이 있는 어린이들을 육성하는 유치원으로 개설했다. 4층건물에 130개 방, 5~6살짜리 어린이들이 유치원에 재학중이다. 낮은반과 높은반으로 편성되어있다.

교육제도를 통해 본 밝은 미래

재미동포인터넷신문 《민족통신》의 글중에서

유치원생들도 모두 당당했다. 그 어느 어린이도 주눅이 든 모습을 볼수 없었다. 교양인들이 무엇을 질문해도 큰소리로 대답한다. 이들을 위한 예능교육도 철저하다. 집단적으로 지도받는 학생들도 있지만 개별지도를 받는 경우도 있다. 피아노를 비롯하여 각종 악기들을 배우는 어린이들도 있고 노래하는 어린이들, 무용을 배우는 어린이들 등 다양하다. 이들 어린이들은 언제나 나라가 마련해주는 무료교육을 통하여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예능도 배우고있다. 그래서 복녘어린이들은 머리도 좋지만 예능에도 뛰어난 모습을 보인다.

평양제1중학교를 방문하여 교장과 부교장의 안내로 시설들을 돌아보고 교실에서 학생들의 수업분위기와 그 모습을 관찰하면서 학생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하나

하나가 나라를 위해 기여하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10층건물에 수업교실들과 전시관들, 실험실 등이 빼곡하게 설치되어있었다. 교원들이 100여명정도이고 40여개 학급이 이 학교에 소속되어있다. 이들 중학생들이 배우는 과목은 19개 과목이 된다고 한다. 중학교시기에 학생들은 이미 줄기세포(Stern Cell)에 대해 공부한다. 영어 공부는 선생이 시작부터 끝까지 100% 영어로 말하고 학습하고있다. 이 학교에서는 1985년부터 컴퓨터교육을 실시했는데 복도 한곳에는 그동안 컴퓨터프로그램전국경연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재학생들의 이름과 소속이 소개되어있었다.

실로 복녘사회의 자신의 의욕만 있다면 대학교 박사원도 모두 무료로 갈수 있다. 그리고 무료교육뿐만아

나라 전체 구성원들의 의료제도무료혜택 그리고 의식주 문제를 거의 무료로 제공받는 사회이다. 여기에서 주력문제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매주 한병값이 얼마안되는것이 북부조국의 주력혜택의 현실이다.

경제장국을 건설하는 그 배경에도 지식경제라는 류행어가 뒤따른다. 다시말하면 강성국가의 원동력을 첨단과학기술에 두고있다는 점이다. 복녘사회는 이미 첨단과학국으로 지구촌에 우뚝 섰다. 《광명성-3》호 2호기발사가 성공하여 제 궤도에 정확하게 진입하였다는 력사적사실이 그것을 구체적인 증빙하고있다.

지구촌에 200여개 나라들이 존재하지만 자기의 기술, 자기의 지혜, 자기의 재료를 인공지구위성을 발사하여 성공한 나라들은 불과 손꼽을

어머니날이 다가왔다. 누구에게나 한생토록 사랑하고 추억할 어머니가 있기에 어머니날은 이 나라의 아들딸들에게 있어서 뜻깊은 날로 되고있다.

돌이켜보면 어머니란 말이 생겨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날처럼 그렇게 소중한 값높이 불리우려는 없었다. 이 땅의 어머니들은 단순히 자식을 가진 여성이 아니라 애국자들이다.

조국을 만들어가는데서 특출한 공로를 세운 영웅어머니들, 나라의 대를 굳건히 이어나갈 아들딸들을 많이 낳아 훌륭히 키우고있는 모성영웅어머니들, 과학기술발전과 후대교육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는 교수, 박사어머니들...

량심과 성실성을 인간의 가장 높은 금세로 여기는 공화국에서는 땅을 가꾸고 선반을 돌리며 도로를 관리하는 평범한 내인들이 국가정사를 의논하는 최고인민회의

축복을 받으리라

대의원으로, 주권기관의 담당자로 되어 자기들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고있다.

돌이켜보면 해방전 우리 어머니들은 누구보다 피눈물을 많이 흘렸다. 그러나 절세위인들을 모시여 어머니들도 여성의 권리를 되찾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삶의 보람, 행복을 쫓아주게 되었다.

해방후 어머니수령인께서는 력사적인 남녀평등권법을 발표하도록 하시여 여성들을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 내세워주시었으며 주체 50(1961)년 11월에 전국어머니대회를 소집하시고 《자녀교양에서 어머니들의 임무》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여 부강조국건설에서 어머니들의 역할을 다하도록 크나큰 고무와 믿음을 주시었다. 여성들과 어머니들을 사회

의 힘있는 역량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성들이 사회활동에서 자기의 지위와 역할을 다하도록 하시었으며 이 땅위에 여성중심의 화원이 만발하도록 하시었다.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이으시여 녀성들의 행복한 삶을 지켜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는 11월 16일을 어머니날로 제정하도록 해주시고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를 성대하게 진행하여 어머니들의 명절을 온 나라의 축복속에 의의있게 경축하도록 하여주시었다.

이 세상 천만어머니들의 사랑과 정을 합쳐도 따르지 못할 가장 위대한 사랑이 3.8국제부녀절을 기념하여 펼친 무대에, 새로 일떠선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

의 이르는 곳마다에 봄날의 햇빛마냥 따스하게 비쳐들었다.

은혜로운 그 사랑에 실려 노래 《녀성은 꽃이라네》, 《사랑하리라》, 《우리 집 사람》 등이 시대의 녀성찬가로, 나라의 축복으로 이 땅에 울려 퍼지고 선진시대 어머니들의 아름다움 삶의 향기가 온 나라 강산에 넘쳐나고있다.

오늘 반공화국적대세력들의 암살책동이 우습게되고있는 속에서 우리 어머니들은 후대들을 부강조국의 기둥감으로 더덕하게 키우고 애국의 열정으로 나라의 부강변영에 이바지하고있다.

고마운 사회의 비옥한 토양을 타고 오갈 때에도 아이들이 저들끼리 수삭이는 소리들에서도 어머니날에 대한 화제가 튀어나오군 한다. 집안에서 집밖에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주겠다고 관심을 쓰는 아이들을 보니 얼마전에 돌아가신 나의 어머니가 생각났다.

본사기자 최대성

때로 사람들은 레사로운 생활의 갈피속에서 충격을 받는 경우가 있다.

나 역시 그랬다. 개학날을 앞두고 소학교 교원들이 찾아다니며 학령기나이의 어린이들을 빠짐없이 학교에 등록하라는 내용의 알림문을 아파트현관들앞에 붙이는 모습을 보면서 전반기12년제의무교육제도의 우월성을 매부로 느낄 수 있었고 또 어느 일요일에는 미술박물관에 전시된 《한 생명을 위하여》라는 평범한 조선화 작품을 보면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무상치료제의 고마움을 새삼스러이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평범한 날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화국에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가 진행되는 매우 경사스러운 명절이었다. 선거를 앞둔 공화국의 거리와 마을은 이채로운 분위기로 흥성거렸다.

나도 아침일찍 선거장에 나가 사람들과 어울렸다. 내

가 속한 선거구의 대의원후보자는 평천구역도시시설사업소 도로관리원 최장애라는 30대 중반의 젊은 녀성이었다.

문득 나의 눈앞에 대의원의 사진앞에서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한 녀성의 모습이 안겨왔다.

알고보니 조국방문차로 얼마전 평양에 온 재미동포녀

그의 말을 듣는 나의 머리속에는 불현듯 얼마전 한 남조선출판물에 실린 이런 글이 떠올랐다.

《내가 사는 (한국)은 인권의 불모지이다. 아이를 공부시키려고 해도 감당할수 없는 등록금을 내야 하고 자기 집을 쓰고 살려 해도 돈이 있어야 하며 진찰 정도의 가벼운 의료진단을 받자고 해도 한달동안 뼈빠지게 일한 돈을 들여야 한다. 돈이 없이는 초보적인 인간의 권리도 담보받수 없는 (한국), 돈의 권리가 끝 인간의 권리로 되는 (한국)이야말로 (금권)의 나라라 해야 할 것이다.》

생각이 깊어진다. 인권이 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인간의 권리라는 의미를 담고있다.

권리, 이것은 참된 삶의 지향이고 그 지향을 쫓아주는 조건이다. 그런데 그 인간의 권리가 돈에 의하여 좌

우되는 남조선사회에서 돈이 없는 대다수 인민들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되고있는가.

인민을 위한 정치아래서는 인간의 자주적존엄과 권리가 보장되고 지켜지고있지만 1%밖에 안되는 부자들만을 위한 정치아래서는 돈이 곧 사람이며 돈이 인간의 권리로 되는것이다.

인권과 금권!

서로 상반되는 이 말속에는 북과 남의 판이한 인권실상이 그대로 비껴있다. 그렇다.

공화국이야말로 참다운 인권이 보장되고있는 인민의 지상왕국이라면 남조선이야말로 1% 부자들만을 위한 《부자천국》, 《금권천국》인것이다.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이날, 나는 인민의 자주적존엄과 권리를 지켜주고 빛내여주는 공화국의 현실에 대하여 이렇듯 가슴뜨거이 체험할수 있었다.

본사기자 김준경

참다운 인권은 어디서 꽃피는가

성이었다. 순간 나는 기자라는 직업적흥분이 가슴속에 차오름을 느꼈다. 나는 그에게로 다가가 조국에서 선거에 참가하는 소감에 대하여 물었다.

《전 오늘 깜짝 놀랐어요. 평범한 녀성이, 그것도 아첨지역 도라라는 도로관리원이나 나라의 정사를 토의하는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선거된다니 이렇듯 녀성의 존엄과 권리가 존중되는 공화국이야말로 참다운 인권이 보장되는 인민의 나라예요.》

도 한달동안 뼈빠지게 일한 돈을 들여야 한다. 돈이 없이는 초보적인 인간의 권리도 담보받수 없는 (한국), 돈의 권리가 끝 인간의 권리로 되는 (한국)이야말로 (금권)의 나라라 해야 할 것이다.》

생각이 깊어진다. 인권이 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인간의 권리라는 의미를 담고있다.

권리, 이것은 참된 삶의 지향이고 그 지향을 쫓아주는 조건이다. 그런데 그 인간의 권리가 돈에 의하여 좌

후에 마시령스키장에서 문명의 눈길기를 날리며 행복과 기쁨의 환성을 터뜨리고있다. 세계적으로 마술은 보통 돈많은 유한계층의 《취미의 승마》로 불리우지만 평양시 미림지구에서 건설된 승마구락부에서는 평범한 근로자들 누구나 와서 마음껏 즐기고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자기들이 누리는 행복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라면 억만금도 아끼지 않는 고마운 제도라 시책하에서 공화국인민들이 자기도 모르게 《량심 없는 사람들》로 불리우고있는 것이다.

본사기자 김철호

만복을 누리며 산다

도시와 농촌 그 어디에나 병원, 진료소들이 훌륭히 꾸려져있어 병치료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환자들에게 대한 진찰로부터 검사, 진단, 치료 등이 다 무상으로 진행되고있으며 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에도 입원비, 약값 등은 모두 국가에서 부담한다. 하기에 공화국인민들은 간단한 진찰을 물론 위험한 생명을 소생시키는 큰 수술을 받고도 자기들이 받은 혜택이 얼마인지를 잘 모르고있다.

최근에만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 유류아동병원, 류경구강병원을 비롯한 현대적인 병원들이 일떠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평범한 근로자들이 무상으로 치료를 받

고있다.

병을 진찰하기에 앞서 환자의 돈주머니부터 진찰하는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일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보통 진찰을 받자고 해도 1회당 1000US\$, 종합검진비는 2000US\$, 총수술수술비 1만 500US\$, 해산수술비 2만US\$, 분만식수술비 5만US\$, 위장수술비 5만 500US\$, 심장수술비 10만US\$ 등 사람이 치료받는데 엄청난 액수의 돈이 든다고 한다.

그러니 복속에서 복을 모

른다고 공화국인민들이 알고 받는 사람보다 모르고 받는 사람이 그 얼마나 많은가. 등록금이란 말도 모르고 국가로부터 장학금까지 받으며 마음껏 배우고 국가가 지어준 훌륭한 살림집을 돈 한푼 안내고 그저 쓰고 산다. 얼마전에는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술에 현대적인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이 일떠서 평범한 교원들이 새집들이를 하였다.

어디 그뿐인가. 스키하면 겨울의 나라라고 일컬어는 북유럽나라들의 교상지대를 연상하던 공화국인민들이 오



류경구강병원에서 무상인공치료를 받고있다.

정도로 소수에 불과하다. 남 《한》당국이 그렇게 열망하고 바라던 《라로》호가 남의 도움을 얻어 발사체를 비싼 돈을 지불하고 시도하였지만 번번이 실패와 연기를 반복하였던것이다.

나는 미래의 인재들을 양성하는 복녘의 교육기관들과 학생들을 만나보고 많은 것을 생각했다. 남과 북이 힘을 합쳐 첨단과학기술을 개발해왔다면 남의 나라 과학기술을 엄청난 돈을 들여 빌려서 인공지구위성을 발사할 필요가 있을까? 이번 방북을 통해서도 하루속히 남과 북이 손을 잡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명기된 그대로만 실천하고 서로 돕기만 한다면 남, 북, 해외 온 겨레는 그야말로 세계에서 훌륭한 민족으로 존경받는 대상이 될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로길남

어머니!

다 자란 아이들을 놓고 귀밀머리가 희어진 지금에도 아이적복소리로 부르던 어머니였다. 불려보는것만으로도 민족감을 느끼게 하고 어머니의 체취를 느끼기만 해도 만시름이 누이군 하였다. 안라깝고 속상하던 일, 기쁘고 즐거웠던 일, 말 못할 고민도 스스럼없이 터놓던 어머니였다. 비바람, 눈

바람을 다 막아내주며 세월의 흐름속에서도 변함이 없이 나를 지켜주고 보살펴 주던 어머니...

나도 우리 아이들처럼 나의 어머니를 기쁘게 해주고 싶다. 하지만 이제는 어머니를 기쁘게 해주고싶어도 그럴수가 없다. 귀중함을 잃은 다음에야 그 가치를 안다는 말이 있다.

정말 좋은 말이다.

자식들의 뒤바라지에 마를새 없던 어머니의 옷자락이, 자식을 위한 오만가지 근근심에 날이 희어가

임겨줄수 없었던 운명과 미래까지도 다 맡아안아주고 잘난 자식, 못난 자식 탓하지 않고 정을 다하여 키워주고 때로는 아픈 매도 들어가며 참다운 삶의 길로 이끌어주는 고마운 조선로동당의 품을 어머니라는 말이 아닌 다른 말로 어이 부를수 있겠나.

하기에 당의 품속에서 삶의 보람과 희열을 느낀 내 조국의 천만아들딸들이 심장으로 리치는 말이 있다.

어머니, 어머니없이 나는 못살아!

나 하나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어머니를, 내 생의 전부와 같은 어머니를 나는 사랑한다. 그리고 언제나 기쁘게 해드리고싶다.

지금은 낳아준 어머니가 전부인줄로만 알던 나의 아들딸들도 다 자라 어른이 되면 얼마나 은혜로운 품이, 이 세상 천만 어머니들의 사랑과 합친것보다 더 큰 사랑의 힘이 곁에 있었는가를 심장으로 느끼게 될것이다. 그 품을 위해 목숨도 아낌없이 바칠 것이다.

평양시 대성구역 룡흥1동 고순옥

11월 16일은 어머니날이다. 어머니날은 누구에게나 손꼽아 기다려지는 날이다.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는 자식은 없기에...

우리 집에서는 올해에 고급중학교를 졸업한 딸이 어머니를 축하하는 다메체편지물을 만드는데 며칠째 밤늦게까지 컴퓨터앞을 떠날줄 모른다. 고급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은 누나가 만드는 다메체편지물을 《검열》해보며 어떤 그림과 음악을 어떻게 넣으면 편지물의 효과를 더 잘 살릴수 있다고 제법 《훈시질》이다. 어머니날에 무엇을 준비했는가고 묻는 누나의 성가신 물음에 아직은 《비밀》이라며 대답을 피하던 아이들이다. 그런데 오늘은 아침일찍부터 누나와 소곤거리느라 여념이 없었다.

요즈음은 출퇴근길에 지하철도를 타고 오갈 때에도 아이들이 저들끼리 수삭이는 소리들에서도 어머니날에 대한 화제가 튀어나오군 한다. 집안에서 집밖에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주겠다고 관심을 쓰는 아이들을 보니 얼마전에 돌아가신 나의 어머니가 생각났다.

어머니!

다 자란 아이들을 놓고 귀밀머리가 희어진 지금에도 아이적복소리로 부르던 어머니였다. 불려보는것만으로도 민족감을 느끼게 하고 어머니의 체취를 느끼기만 해도 만시름이 누이군 하였다. 안라깝고 속상하던 일, 기쁘고 즐거웠던 일, 말 못할 고민도 스스럼없이 터놓던 어머니였다. 비바람, 눈

바람을 다 막아내주며 세월의 흐름속에서도 변함이 없이 나를 지켜주고 보살펴 주던 어머니...

나도 우리 아이들처럼 나의 어머니를 기쁘게 해주고 싶다. 하지만 이제는 어머니를 기쁘게 해주고싶어도 그럴수가 없다. 귀중함을 잃은 다음에야 그 가치를 안다는 말이 있다.

정말 좋은 말이다.

자식들의 뒤바라지에 마를새 없던 어머니의 옷자락이, 자식을 위한 오만가지 근근심에 날이 희어가

임겨줄수 없었던 운명과 미래까지도 다 맡아안아주고 잘난 자식, 못난 자식 탓하지 않고 정을 다하여 키워주고 때로는 아픈 매도 들어가며 참다운 삶의 길로 이끌어주는 고마운 조선로동당의 품을 어머니라는 말이 아닌 다른 말로 어이 부를수 있겠나.

하기에 당의 품속에서 삶의 보람과 희열을 느낀 내 조국의 천만아들딸들이 심장으로 리치는 말이 있다.

어머니, 어머니없이 나는 못살아!

나 하나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어머니를, 내 생의 전부와 같은 어머니를 나는 사랑한다. 그리고 언제나 기쁘게 해드리고싶다.

지금은 낳아준 어머니가 전부인줄로만 알던 나의 아들딸들도 다 자라 어른이 되면 얼마나 은혜로운 품이, 이 세상 천만 어머니들의 사랑과 합친것보다 더 큰 사랑의 힘이 곁에 있었는가를 심장으로 느끼게 될것이다. 그 품을 위해 목숨도 아낌없이 바칠 것이다.

평양시 대성구역 룡흥1동 고순옥

공화국의 품에서 삶을 빛내인 미술가들

극장, 극기와 더불어 전해지는 화가

오늘 우리 공화국의 창공에 찬란한 람송새공화국이 펴리고 있다. 사람들에게 자주적인민의 존엄과 긍지를 되새겨주고 영원토록 무궁번영할 신근조건의 위용을 과시하며 국제경기무대에서도, 인민의 마음속에서도 세계적 펴리는 공화국기발.

그 기발을 우러러볼 때마다 찬란한 나라의 국장과 국기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집일성대원수님의 태양같은 미소가 환히 어려온다.

공화국이 창건되던 날에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며 국장, 국기를 도안하는 영예로운 사업에 참가한 화가들 중에는 김주경도 있다.

1902년 충청북도 진천군의 빈농가에서 태어난 그는 1924년 미술에 뜻을 품고 일본도쿄미술학교 사범과에 입학하였다. 당시는 서유럽의 형식주의미술이 급속히 전파되어 일본미술계를 휩쓸고 있던 시기였다.

그는 사실주의회화에 대한 역사적인식이 없지 당시 환경에 몰렸어 열성을 다하여 그림을 그렸다.

도쿄미술학교에 다닐 때에 그린 유화 《과일이 있는 정물》, 《사양》(1927)은 서유럽인상주의 화풍을 흉내낸 작품이다.

이 시기 그는 형식주의적 창작방법에 매달려 미술의 사회적내용을 떠나 형식논에 많이 빠져있었다.

도쿄미술학교를 졸업하고 조선으로 돌아온 그는 1930년에 진보적인

서양화 그룹인 《북향회》를 조직하고 많은 풍경화들을 그렸다.

유화 《초가을》(1930), 《야산》(1933), 《숲》(1934), 《초가을의 숲》(1936), 《동해나무》(1939) 등은 그가 서울경성고보에서 미술교원을 하면서 그린 풍경화들이다.

유화 《야산》은 대각선으로 위치한 야산전체에 작은 나무가 서있는 풍경화이다. 근경에는 칙칙한 색으로 통일시킨 밝은 경계야산 밑까지 선정되었다.

쓸쓸하고 적막한 감정을 자아내는 풍경은 그의 사상감정을 반영하고있다. 1933년에 일제의 탄압에 의하여 진보적인 사회미술단체인 《북향회》가 해산되었던 것이다.

김주경은 일제총독부에 대한 불만과 항거정신을 가지고 눈물이 주척하는 조선미술전람회 출품을 단념하고 묵묵히 자기 혼자 풍경화를 그렸다.

유화 《야산》을 그린 다음 김주경은 울분에 찬 감정을 표현하는 시를 화포위에 써놓았다.

유화 《야산》을 그린 다음 김주경은 울분에 찬 감정을 표현하는 시를 화포위에 써놓았다.

오 초연한 그대의 모습 이어 웃도 없고 갖도 없는 들산 이어 그대는 어제도 그리 갖는 것이 없지

해방전 우리의 민족미술은 일제의 민족문화말살책동과 서유럽미술의 범람에 갈길을 찾지 못하고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것이 인민의 세세상인 공화국이 창건되면서 절세위인의 탁월한 령도에 미술분야에서도 비로소 밝은 갈길이 열리게 되었으며 조국이 알고 겨레가 추억하는 수많은 재능있는 화가들도 자라나게 되었다.

오늘 사회주의명명국건설이 힘차게 벌어지는 속에 우리의 주체미술도 자기 발전

에 대한 동맹의 강령도 제기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을 강점한 미국과 그 주주들에 의해 문학예술은 미국화, 서방화되어갔으며 진보적인 문화단체들의 활동은 탄압당하고 강제해산당하기가 일쑤였다.

1946년 10월 김주경은 미술가의 새로운 삶을 찾아 공화국북반부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때부터 그는 참다운 창작의 길에 들어섰기 있었다.

주제 36(1947)년 9월 초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전문미술교육기관인 평양미술전문학교를 세우도록 하시고 김주경을 이 학교의 첫 교장으로 임명해주시었다. 해방전 미술에 대한 포부 하나만을 가지고 가슴에 우머 고학생의 설움에 울던 그는 자기를 우리 나라의 첫 미술교육기관의 책임자로 내세워주신 수령님의 은

덕이 너무도 고마워 눈시울을 적시었다.

그는 그해 문학예술총회 미술전람회(제1차 국가미술전람회)에 유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의 전적》을 출품하였으며 1등상을 수여받았다. 또한 유화 《신록》(1947), 《조선인민군열병식》(1948), 《용광로》(1949)를 창작 발표하였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그림을 배우고 일제식민지통치시기 도란에 허덕이는 우리 인민과 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전문미술교육기관인 평양미술전문학교를 세우도록 하시고 김주경을 이 학교의 첫 교장으로 임명해주시었다.

해방전 미술에 대한 포부 하나만을 가지고 가슴에 우머 고학생의 설움에 울던 그는 자기를 우리 나라의 첫 미술교육기관의 책임자로 내세워주신 수령님의 은

덕이 너무도 고마워 눈시울을 적시었다. 그는 그해 문학예술총회 미술전람회(제1차 국가미술전람회)에 유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의 전적》을 출품하였으며 1등상을 수여받았다. 또한 유화 《신록》(1947), 《조선인민군열병식》(1948), 《용광로》(1949)를 창작 발표하였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그림을 배우고 일제식민지통치시기 도란에 허덕이는 우리 인민과 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전문미술교육기관인 평양미술전문학교를 세우도록 하시고 김주경을 이 학교의 첫 교장으로 임명해주시었다. 해방전 미술에 대한 포부 하나만을 가지고 가슴에 우머 고학생의 설움에 울던 그는 자기를 우리 나라의 첫 미술교육기관의 책임자로 내세워주신 수령님의 은

에 새겨진 귀중한 작품들이고 그 화가들의 이름이다. 이제는 그들이 우리 곁에 없지만 그들이 남긴 작품은 민족의 력사속에, 추억속에 길이 남아 우리를 창조와 변영, 통일애국에 힘있게 추동해주고있다.

민주조선건설로선과 전체 인민들의 건국투쟁은 그의 창작적심장을 세차게 두드렸으며 주체령역에서 폭을 넓히고 다양한 작품들을 창작해 낼수 있게 하였다.

그의 일생에서 가장 큰 행운은 위대한 수령님을 여러 차례나 몸가까이 만나뵈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은것이였다.

주제 37(1948)년 1월 10일 함박눈이 펄펄 내리던 그날 그를 몸가까이 부르신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새 민주조선의 미술인재를 키워나가는데서 나서는 강령적교시를 주시었다.

공화국이 창건되던 날 그는 영광스럽게도 국가의 표징과 상징인 국장과 국기의 도안을 작성하는 사업에도 참가하게 되었다. 그를 비롯한 창작자들은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도안작업에 온갖 심혈을 다 바쳤으나 일

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도안작업에서 제외되 버리고 민족적인 유희를 발전시키는데도 돌입할수 있게 하는 생명력으로 되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그는 평양미술대학 학장사업을 훌륭히 수행하여 1953년 제1기 졸업생들을 사회에 진출시켰다.

1958년 그는 10여년간의 교육사업을 마치고 조선미술가동맹 현역미술가로 본격적인 창작생활을 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는 해방후 아버지수령님의 직접적지시상과 세심한 가르치심을 심장으로 받들고 공화국국기와 국장도안에 참가한 그를 높이 평가하여 공화국창건 30돐을 맞으며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사랑의 선물을 안겨주시었다.

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도안작업에서 제외되 버리고 민족적인 유희를 발전시키는데도 돌입할수 있게 하는 생명력으로 되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그는 평양미술대학 학장사업을 훌륭히 수행하여 1953년 제1기 졸업생들을 사회에 진출시켰다.

1958년 그는 10여년간의 교육사업을 마치고 조선미술가동맹 현역미술가로 본격적인 창작생활을 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는 해방후 아버지수령님의 직접적지시상과 세심한 가르치심을 심장으로 받들고 공화국국기와 국장도안에 참가한 그를 높이 평가하여 공화국창건 30돐을 맞으며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사랑의 선물을 안겨주시었다.

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도안작업에서 제외되 버리고 민족적인 유희를 발전시키는데도 돌입할수 있게 하는 생명력으로 되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그는 평양미술대학 학장사업을 훌륭히 수행하여 1953년 제1기 졸업생들을 사회에 진출시켰다.

1958년 그는 10여년간의 교육사업을 마치고 조선미술가동맹 현역미술가로 본격적인 창작생활을 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는 해방후 아버지수령님의 직접적지시상과 세심한 가르치심을 심장으로 받들고 공화국국기와 국장도안에 참가한 그를 높이 평가하여 공화국창건 30돐을 맞으며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사랑의 선물을 안겨주시었다.

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도안작업에서 제외되 버리고 민족적인 유희를 발전시키는데도 돌입할수 있게 하는 생명력으로 되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그는 평양미술대학 학장사업을 훌륭히 수행하여 1953년 제1기 졸업생들을 사회에 진출시켰다.

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도안작업에서 제외되 버리고 민족적인 유희를 발전시키는데도 돌입할수 있게 하는 생명력으로 되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그는 평양미술대학 학장사업을 훌륭히 수행하여 1953년 제1기 졸업생들을 사회에 진출시켰다.

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도안작업에서 제외되 버리고 민족적인 유희를 발전시키는데도 돌입할수 있게 하는 생명력으로 되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그는 평양미술대학 학장사업을 훌륭히 수행하여 1953년 제1기 졸업생들을 사회에 진출시켰다.

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도안작업에서 제외되 버리고 민족적인 유희를 발전시키는데도 돌입할수 있게 하는 생명력으로 되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그는 평양미술대학 학장사업을 훌륭히 수행하여 1953년 제1기 졸업생들을 사회에 진출시켰다.

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도안작업에서 제외되 버리고 민족적인 유희를 발전시키는데도 돌입할수 있게 하는 생명력으로 되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그는 평양미술대학 학장사업을 훌륭히 수행하여 1953년 제1기 졸업생들을 사회에 진출시켰다.

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도안작업에서 제외되 버리고 민족적인 유희를 발전시키는데도 돌입할수 있게 하는 생명력으로 되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그는 평양미술대학 학장사업을 훌륭히 수행하여 1953년 제1기 졸업생들을 사회에 진출시켰다.

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도안작업에서 제외되 버리고 민족적인 유희를 발전시키는데도 돌입할수 있게 하는 생명력으로 되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그는 평양미술대학 학장사업을 훌륭히 수행하여 1953년 제1기 졸업생들을 사회에 진출시켰다.

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도안작업에서 제외되 버리고 민족적인 유희를 발전시키는데도 돌입할수 있게 하는 생명력으로 되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그는 평양미술대학 학장사업을 훌륭히 수행하여 1953년 제1기 졸업생들을 사회에 진출시켰다.

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도안작업에서 제외되 버리고 민족적인 유희를 발전시키는데도 돌입할수 있게 하는 생명력으로 되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그는 평양미술대학 학장사업을 훌륭히 수행하여 1953년 제1기 졸업생들을 사회에 진출시켰다.

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도안작업에서 제외되 버리고 민족적인 유희를 발전시키는데도 돌입할수 있게 하는 생명력으로 되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그는 평양미술대학 학장사업을 훌륭히 수행하여 1953년 제1기 졸업생들을 사회에 진출시켰다.

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도안작업에서 제외되 버리고 민족적인 유희를 발전시키는데도 돌입할수 있게 하는 생명력으로 되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그는 평양미술대학 학장사업을 훌륭히 수행하여 1953년 제1기 졸업생들을 사회에 진출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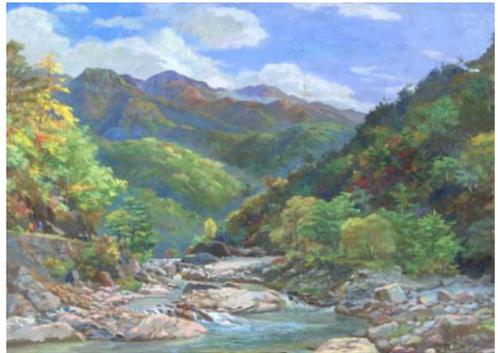
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도안작업에서 제외되 버리고 민족적인 유희를 발전시키는데도 돌입할수 있게 하는 생명력으로 되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그는 평양미술대학 학장사업을 훌륭히 수행하여 1953년 제1기 졸업생들을 사회에 진출시켰다.

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도안작업에서 제외되 버리고 민족적인 유희를 발전시키는데도 돌입할수 있게 하는 생명력으로 되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그는 평양미술대학 학장사업을 훌륭히 수행하여 1953년 제1기 졸업생들을 사회에 진출시켰다.

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도안작업에서 제외되 버리고 민족적인 유희를 발전시키는데도 돌입할수 있게 하는 생명력으로 되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그는 평양미술대학 학장사업을 훌륭히 수행하여 1953년 제1기 졸업생들을 사회에 진출시켰다.

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도안작업에서 제외되 버리고 민족적인 유희를 발전시키는데도 돌입할수 있게 하는 생명력으로 되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그는 평양미술대학 학장사업을 훌륭히 수행하여 1953년 제1기 졸업생들을 사회에 진출시켰다.

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도안작업에서 제외되 버리고 민족적인 유희를 발전시키는데도 돌입할수 있게 하는 생명력으로 되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그는 평양미술대학 학장사업을 훌륭히 수행하여 1953년 제1기 졸업생들을 사회에 진출시켰다.



김주경의 작품 유화 《도향산》(1955년)

재치있는 풍물기, 어른들도 감탄 * 뛰어난 재간둥이들의 경연 진행 *

뛰어난 재간둥이들의 무대 참가를 바라는 나이 어린 지방자들이 날로 늘어나고있는 속에 얼마전 제7차 뛰어난 재능을 가진 전국유치원어린이들의 경연이 진행되었다.

이번 경연은 지난 시기와 달리 서예, 그림, 만들기와 함께 운동, 지능경연도 진행되었다.

경연에는 각 도별경연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100여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하였다. 이번 경연에서 어린이들의 운동경연이 특별히 눈길을 끌었다.

풍물기, 내춤차기, 풍다루기, 풍령기 등 축구, 풍구의 기초동작들을 정해진 시간과

에 누가 더 많이 하는가를 겨루는 경연에서 어린이들은 어른들이 놀랄 정도로 기초동작들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5~6살 난 어린이들이 높은 풍간자를 가지고 제법 능숙하게 풍을 다루는 모습은 미래의 유명해 체육선수들을 보는듯 하여 장내에 박수가 터져나왔다.

지능경연도 흥미있게 진행되었다. 지능경연에서는 90개의 글자가 마구 섞여있는 판에서 동물의 이름을 정해진 시간을 누가 더 많이 찾아내느냐를 겨루었다.

동물이름찾기는 우리 말과 썰매기 그리고 자연상을

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있는가와 함께 어린이들의 기억력, 사고력, 관찰력, 상상력을 다같이 종합적으로 평가할수 있게 하는 지능경연이었다.

이 지능경연에서 평양시 모란봉구역 김마을1유치원의 최승린어린이가 20개 중 19개를 찾아 특등을 하였다.

서예경연에서는 평양시 사동구역 송신3유치원, 모란봉구역 김마을1유치원어린이들이, 만들기경연에서는 창랑유치원어린이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 경연에서는 평양시가 종합 1등을 하였다. 본사기자

속담 가정의 복

《장맛이 단 집에 복이 많다.》 장맛이 좋은 집은 장을 담그는 주부의 알뜰한 살림살이 솜씨에 의해서 집안도 또한 행복한 법이라고 일러오는 말이다.

《집안이 흥하면 손님이 많다.》 집안이 화목하고 덕망이 있는 집에는 많은 손님이 찾아온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이다.

《집안이 화목해야 민사가 잘된다.》 집안이 화목해야 무슨 일이나 잘되어간다는 것을 교훈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집안이 좁은건 살이라도 마음 좁은건 못산다.》 집이 좁은건 좁은대로 참으면서 살수 있으나 속이 좁아서 껄떡하게 구는 사람하고는 같이 생활하기 힘들다는 뜻으로 집안이나 집안이 화목해야 함을 이르는 말이다.

《곰보은천》이 장문으로 되기까지

강감찬장군의 가문이 매우 겸박하고 청렴하였다는것은 그의 전기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강감찬장군의 집은 그가 출생할 때에만 하여도 어느 산촌의 오막살이였다고 한다. 강감찬의 아버지가 고려대조 왕건의 건국 투쟁공신이면서도 이런 집안에서 살았다는것만으로도 그 겸소한 가풍을 잘 알수 있다.

강감찬은 어려서부터 성질이 청렴결백하고 사치를 모으며 평민들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였다고 한다. 그가 어려서부터 남다른게 있었으니 아마도 조상전례의 겸소한 가풍이 그를 이렇게 키웠을것이다.

무우를 소화제로 쓰려면

무우생나물이나 생무우즙을 먹으면 소화가 잘된다. 그것은 생무우에 밤, 떡, 국수, 감자, 고구마 등의 농마를 섞어는 농마식염효소인 디아스타제가 들어있기때문

이다. 그러므로 소화가 잘되게 하자면 무우를 강판에 갈아 생무우나물이나 무우즙을 만들어먹으면 좋다. 본사기자

사무실에서 식물을 키우면

주었다. 이번 연구에서 학자들은 일반사무실과 녹색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무원들의 차이점 즉 그들이 들이마시는 공

사무실에서 식물을 키우면

기의 질과 주의력, 자기 일러에 대한 만족감, 사업능률을 평가하였다. 식물이 자라는 녹색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사업능

사무실에서 식물을 키우면

률은 일반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15%나 높았다. 녹색사무실의 사무원들속에서는 일반사무실의 사무원들보다 주의력이 높아졌으며 사무처리능력도 훨씬 제고되었다고 한다. 본사기자

양호당집과 개성편수 (6) 글정의선, 그림 김윤일

이 말에 방원은 짜증을 내며 《시끄럽게 굴지 말아. 그리고 누굽고도 내가 저자거리에 나왔다는 말을 하지 말아.》라고 엄하게 분부하였다.

《알겠소이다. 세자전하.》 하고 경호대장은 물러갔다.

선비처럼도 왕궁을 조용히 빠져나온 방원이 편수국집 대문안으로 들어서자 번씨가 맞이하며 《선비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반색을 하였다.

《이 집이 음식점인가?》 《그렇소이다. 이 교장의 특산인 개경편수를 하는 떡국집이오이다.》

《편수편 편수지 (개경편수)란 건 뭐냐?》 《(개경편수)를 모르시는데 보니 개경선비가 아닌 신경소이다.》

《난 한양에서 왔다.》 《아이구, 한양에서 오셨으면 (개경편수)를 모르실수 있소이다. (개경편수)는요, 저 리성계의 모가지를 읊어낸다는 뜻을 가진 음식이오이다.》

《뭐? 목을 졸라嗎?》 리방원의 말투가 매우 거칠어서 그 눈에서 섬광이 번쩍이는데 같았다.

《선비님, 용서하십시오. 개경사람들이 다 그렇게 부르게요... 어서 방으로 들어

방원은 그런것에는 개의치 않고 음식그릇만 살펴보면서 《오, 저 팔갱이갈기도 하고 계정의 뒤갈기도 한게 (개경편수)라겠거냐.》 하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게 어디서 굴러먹던 놈팽이야. 새파랗게 젊은놈이 뭐? 여보게, 저부사 어른, 내 저 작자의 말버릇을 좀 고쳐줘야 하겠소이다.》 하고 몸집이 장대한 40대의 장정이 벌떡 일어났다.

술기운에 거나해졌던 그의 화동잔같은 눈에서는 불길기 이는것 같았다. 그래서 야 방원은 자기의 실책을 느끼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우람하게 생긴 장정이 두꺼비장동같은 커다란 손으로 방원의 팔죽지를 와락 거머쥐었다. 잡힌 팔죽지씨가 당장 바스라지는것 같아 방원은 《아아!》 하고 비명을 지르며 몸사스럽게 벌었다.

《선비님, 선비님, 제가 죽을 죄로 잘못했소이다. 한번만, 한번만 용서해주시오이다.》

《여보게 유기장군, 음식점이 소란하니 여기서 그러지 말고 저 룡수산에 끌고 가서 실컷 분풀이를 하거나.》 저부사라고 불리운 50대의 좌상록 로인이 말했다. 장정이 잡았던 손을 풀고 강경하듯 방원을 쫓아냈다. 립기

운변에 능한 방원은 얼른 바닥에 꿇어앉으며 벌었다. 《개정의 어르신네들, 저를 용서하여주소이다. 제가 큰 실수를 하였소이다. 저는 한양에 사는 정오준이라고 부르는 평범한 유생을 시다. 제가 오늘 실수를 한것은 어르신네의 주안상을 보면서 저의 친구들의 주안상이 머리에 떠올라서 열결에 무례한 말을 했소이다. 제가 감히 어르신네를 하찮게 볼수 있겠소이까. 제발 너그르게 용서해주주소이다.》 좌상록로인이 년장자답게 방

조의 출현으로 지금은 모두 성 쌓고 남은 돌이 되었지만 자존심까지 잃었겠다. 자, 자리에 앉게. 젊은이의 사과를 너그럽게 받아주세.》 《에이, 오늘 슬맛 다 없어지누만. 여보, 주인.》 하고 유기장군으로 불리우는 장정이 자리에 앉으며 주인을 찾았다.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것만 같아 마음을 조이고있던 번씨가 《에.》 하고 대답하고 나서 방문을 열었다. 《어느분이 찾았소이까?》 하고 물었다.

내가 찾았네. 거 술 한방 구리 더 가져오게.

눈치 빠른 리방원이 얼른 그 말을 넘겨받아 주인에게 이 실수를 했다니 우리 그림을 믿겠네. 하네는 여기 모인 사람들이 하찮아보일수도 있지만 전전때는 모두 경쟁한 조정지신이었다네. 새 왕

《여보게 젊은이, 일어나게. 자네가 우리의 주안상을 친구들의 주안상으로 착각하여 실수를 했다니 우리 그림을 믿겠네. 하네는 여기 모인 사람들이 하찮아보일수도 있지만 전전때는 모두 경쟁한 조정지신이었다네. 새 왕

《여보게 젊은이, 일어나게. 자네가 우리의 주안상을 친구들의 주안상으로 착각하여 실수를 했다니 우리 그림을 믿겠네. 하네는 여기 모인 사람들이 하찮아보일수도 있지만 전전때는 모두 경쟁한 조정지신이었다네. 새 왕

《여보게 젊은이, 일어나게. 자네가 우리의 주안상을 친구들의 주안상으로 착각하여 실수를 했다니 우리 그림을 믿겠네. 하네는 여기 모인 사람들이 하찮아보일수도 있지만 전전때는 모두 경쟁한 조정지신이었다네. 새 왕

《여보게 젊은이, 일어나게. 자네가 우리의 주안상을 친구들의 주안상으로 착각하여 실수를 했다니 우리 그림을 믿겠네. 하네는 여기 모인 사람들이 하찮아보일수도 있지만 전전때는 모두 경쟁한 조정지신이었다네. 새 왕

《여보게 젊은이, 일어나게. 자네가 우리의 주안상을 친구들의 주안상으로 착각하여 실수를 했다니 우리 그림을 믿겠네. 하네는 여기 모인 사람들이 하찮아보일수도 있지만 전전때는 모두 경쟁한 조정지신이었다네. 새 왕

《여보게 젊은이, 일어나게. 자네가 우리의 주안상을 친구들의 주안상으로 착각하여 실수를 했다니 우리 그림을 믿겠네. 하네는 여기 모인 사람들이 하찮아보일수도 있지만 전전때는 모두 경쟁한 조정지신이었다네. 새 왕

내가 찾았네. 거 술 한방 구리 더 가져오게.

눈치 빠른 리방원이 얼른 그 말을 넘겨받아 주인에게 이 실수를 했다니 우리 그림을 믿겠네. 하네는 여기 모인 사람들이 하찮아보일수도 있지만 전전때는 모두 경쟁한 조정지신이었다네. 새 왕

《여보게 젊은이, 일어나게. 자네가 우리의 주안상을 친구들의 주안상으로 착각하여 실수를 했다니 우리 그림을 믿겠네. 하네는 여기 모인 사람들이 하찮아보일수도 있지만 전전때는 모두 경쟁한 조정지신이었다네. 새 왕

《여보게 젊은이, 일어나게. 자네가 우리의 주안상을 친구들의 주안상으로 착각하여 실수를 했다니 우리 그림을 믿겠네. 하네는 여기 모인 사람들이 하찮아보일수도 있지만 전전때는 모두 경쟁한 조정지신이었다네. 새 왕

《여보게 젊은이, 일어나게. 자네가 우리의 주안상을 친구들의 주안상으로 착각하여 실수를 했다니 우리 그림을 믿겠네. 하네는 여기 모인 사람들이 하찮아보일수도 있지만 전전때는 모두 경쟁한 조정지신이었다네. 새 왕

《여보게 젊은이, 일어나게. 자네가 우리의 주안상을 친구들의 주안상으로 착각하여 실수를 했다니 우리 그림을 믿겠네. 하네는 여기 모인 사람들이 하찮아보일수도 있지만 전전때는 모두 경쟁한 조정지신이었다네. 새 왕

《여보게 젊은이, 일어나게. 자네가 우리의 주안상을 친구들의 주안상으로 착각하여 실수를 했다니 우리 그림을 믿겠네. 하네는 여기 모인 사람들이 하찮아보일수도 있지만 전전때는 모두 경쟁한 조정지신이었다네. 새 왕

《여보게 젊은이, 일어나게. 자네가 우리의 주안상을 친구들의 주안상으로 착각하여 실수를 했다니 우리 그림을 믿겠네. 하네는 여기 모인 사람들이 하찮아보일수도 있지만 전전때는 모두 경쟁한 조정지신이었다네. 새 왕

